

◇진균성 대동맥류 수술 후 발생한 대동맥식도루의 수술 치험

윤영철, 이홍섭, 이선훈, 구본일, 오상준, 김창호

인제대학교 서울 백병원 흉부외과

배경 및 목적 : 매우 드문 질환인 하행대동맥 진균성 동맥류 수술 후 발생한 대동맥식도루 1예를 치험 하여 이에 대한 경험을 보고 하고자 한다.

방법 : 61세 남자환자가 발열, 오심, 구토 증상으로 입원하여 검사결과 하행대동맥류의 파열로 전과 되었다. 첫번째 수술은 femorofemoral bypass 하에 동맥류를 절제한 후 Patch Aortoplasty 를 시행 하였다. 동맥류에서 Sallionella 균이 동정되었고 환자는 합병증 없이 퇴원 하였다. 수술 3 개월 후 환자는 혈변 및 토혈을 주소로 응급실로 입원 하였다. 식도경 상 하부식도에 5-7 cm 의 점막 결손이 발견되고 단층 촬영상 수술 부위동맥류가 재발되어 있었다. 수술은 상행대동맥과 신동맥 하부 복부 동맥간을 인조혈관으로 bypass 한 후 동맥류를 절제하고 양측 동맥은 봉합하였다. 식도를 봉합한 후 omentum 을 식도 봉합부위에 위치 시켰다. 동맥루 조직에서 Staphylococcus 가 동정되었고 환자는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다.

결과 : 의래 추적관찰시 1년 6개월간 이상 소견이 없었다.

결론 : 진균성 동맥류 수술 시 In-Situ graft replace 및 항생제 치료도 좋은 성적을 냈다는 보고가 있으나 하행 대동맥류의 경우 처음부터 Extraanatomic bypass를 시행 하는 것을 고려 하여야 한다

책임저자: 이홍섭 (인제대학교 서울 백병원) 발표자: 윤영철 (인제대학교 서울 백병원)